

# 중국 화이베이시와 자매결연 체결

## 일본 후쿠도시에 이어 두 번째 자매도시

포천시가 지난 2년여간 우호교류 관계를 맺어온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화이베이시(淮北市)와 지난 7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로써 화이베이시는 일본의 아미나시현 후쿠도시에 이어 포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두 번째 도시가 됐다.

통상적인 우호도시(friendship city) 관계에서 포천시의회와 중국 인민대회우호협회의 동의를 거쳐 이번엔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포천시와 화이베이시 양 도시간에 보다 심도 있는 교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체결은 한국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주최한 '제7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회의' 일정 가운데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인쪽)과 콩사오후 화이베이시 부시장이 양 도시 간 자매결연체결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번 포천시와 화이베이시 간의 자매결연체결 합의서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화이베이시 리종진 시장을 대신한 콩사오후 부시장이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경제통상 협력을 위해 양 도시가 경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상품·제조·기술·역역 등에 있어 상호 교류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교환방문 공연과 전시회 개최 등 폭 넓은 교류활동을 전개하며, 행정·교육·체육·청소년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경제인간의 직접적인 유대와 교류를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해,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와 관련한 포천시의 우수 교류사례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 “영림단 확대조직 임업경영 기반 구축”

## 남궁중 제16대 포천시 산림조합장 취임사에서

남궁중 제16대 포천시 산림조합장 취임식이 9일 여성회관에서 경기도산림조합 지회장을 비롯한 포천관내 내빈과 산림조합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취임사에서 남궁중 조합장은 “재해예방 차원의 조림사업은 결국 목재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펄프재나 각종 생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산림의 현실”이라며 “성공한 조림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산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시 어려움이 많아 산주가 조림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 조합장은 “산주 및 조합원을 위해 조림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앙부서에 적극 개선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일환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수종을 산주가 자발적으로 선택해 국고보조로 식재 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남 조합장은 “조합의 상호금융사업과 타 기관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소를 개설하고 단계적인 은행권 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일반자금 및 정책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남 조합장은 또한 “혁신적 산림토목기술 및 경영기술을 바탕으로 국유림 및 민유림 임도를 완벽히 시공하고 영림단을 확대 조직해 임업경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산주를 위한 산림사업은 교육정책과 같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천시가 계획하고 산림사업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이 전담해 포천시 산림이 생산성을 제고하고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 회장은 유인석 경기도산림조합 지회장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남궁중 조합장은 산림조합 직원으로 20여년간 열과 성의를 다해 조합발전과 산지자원화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제하고 “임업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남궁중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원 모두가 산림사업 전담 실행 기관으로 임지를 확고해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남궁중 제16대 포천시 산림조합장 취임식이 20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됐다.

### 목회단상

## 고향(故郷)



김 상 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9월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한가위가 있는 달이다. 추석명절(秋夕明節) 하면 왠지 고향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놀던 곳이 고향이다 사람은 귀소본능(歸所本能)이 있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모하게된다 외국에 나가보면 조국을 떠난 이민동포(移民同胞)들의 향수(鄉愁)에 젖어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 그들의 입에서 “타향살이뭇해던가...” 하였던 향수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역시 사람의 본성은 같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미국역사에 이런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남아 있다 1863년 이른봄이었다. 남군과 북군은 스파트실바니아(Spotsylvania)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자 북군취악대(吹樂隊)가(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남군은(덕시)를 연주하여 맞대항 하였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은 자기들의 군가(軍歌)로 노래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자 북군의 밴드가 군가를 중단하고(홀스 윗트 홀)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올라 하여도...” 이 노래가 흘러 퍼지자 생방의 병사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남군의 밴드도 같은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남군과 북군은 대항합창이 벌어졌던 것이다. (홀스 윗트 홀)은 병사들의 마음을 고향으로 인도했던 것이다. 그들은 24시간 휴전을 약속하고 고향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한다.

우리민족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민족이다. 반세기 가 넘게 이산의 아픔을 안은 채 울어도 민족명절 중추절(仲秋節)을 선물 받는다. 그리움과 한(恨)을 안고 살아온 실향인(失鄉人)들에게는 또 한번의 곁을 싸매야 한다. 고향은 이토록 우리의 마음도 욕심도

지나친 경쟁으로부터 우리를 인도(忍苦)의 사람으로 성숙(盛熟)시킨다.

5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이산 가족들이 만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고향의 봄)을 합창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보면서 국민모두도 함께 합창하고 박수를 친다. 사람의 본능은 이런 애수(哀愁)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인간들은 지위로 권력으로 물질로 알량한 지식으로 포장해보지만 가정과 고향은 이런 탈출을 벗고 진정한 나와 너를 열게 한다.

성서에 보면 아담의 꿈을 안고 고향과 가정을 떠났던 어느 청년이 그 아담의 꿈은 산산이 깨진 채 실재자로 고향을 찾는 모습이 나온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다.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모두에게는 마지막 찾아가야 하는 곳이 고향이다. 육신의 아버지 건 영혼의 아버지 건 고향을 찾는 자를 기쁨으로 환영한다. 아버지는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인다. 이것 성서 속에 나오는 탕자의 교훈이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15장23-24절 “살진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문의) 031-532-2489

### 임산부 대상 출산준비교실 운영

포천시 보건소는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보건소 1층 나눔리방에서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 교실을 개최한다.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이며 20주 이상된 임산부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임신과 분만 라마즈 호흡법 연습인 호흡 모유수유 임산부 요가 등이다.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포천시 보건소(031-538-2546)로 신청하면 된다.

지혜매 기자 94spice@hanmail.net

### ‘소송능력 배양 위한 직원 법률교육’ 실시

포천시는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처법무관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각종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에 입각한 법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적인 사고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혜매 기자 94spice@hanmail.net

###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교환방문 공연과 전시회 개최 등 폭 넓은 교류활동을 전개하며, 행정·교육·체육·청소년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경제인간의 직접적인 유대와 교류를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해,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와 관련한 포천시의 우수 교류사례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지혜매 기자 94spice@hanmail.net

##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지역방범대 ㉒ 이동면자율방범대 대장 박 홍 식

### 치안예방활동 중심으로 학생수송 등 지역봉사

“이동면자율방범대는 이동 청년들 자람이며 지역발전의 중추입니다”

1990년 2월 제1대 이흥우 대장을 필두로 역사를 이어온 이동면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방범 및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이동지구대로 편입됐던 파출소가 다시 이동으로 옮겨지며 활기를 찾고 있는 이동면자율방범대는 여름철 관광지 교통 지원, 인삼밭 순찰, 학생 야간 수송 등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봉사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이동면자율방범대 대장으로 취임한 9대 박홍식(39) 대장으로부터 이동면자율방

범대의 현황 및 활동상을 들었다. 박홍식 대장은 직전 부대장을 역임했으며, 20대 중반부터 방범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

이동면자율방범대는 박홍식 대장을 중심으로 오영식, 정우진, 김준태 부대장, 류관욱 총무, 김창성 부총무로 구성돼 있다.

대원들은 28세부터 4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7개조 35명의 대원들이 저녁 9시부터 새벽2시까지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면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을 통한 치안예방 외에도 실시하는 지역봉사가 하나 있다.

박 대장은 “방범대 업무가 시작되는 저녁 10시부터 10시 40분

까지 여학생 수송을 하고 있다”며 “이동에서 일동을 통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을 위주로 집에까지 수송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면자율방범대는 모두 21개의 지역을 매일 순찰하고 있는데, 차량순찰뿐 아니라 도보순찰도 강화하고 있어 지역에 범죄발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 대장은 “이동은 여름 행락객들과의 말다툼 정도의 경미한 상황만 발생하고는 등 특별한 범죄는 없는 지역”이라며 “전 대원들의 꾸준한 순찰로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면자율방범대에 임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 표현과 추

천이 있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간부회의의 엄정한 심사와 6개월간의 수송기간을 거쳐야한다.

박 대장은 “인원의 이탈과 확실한 봉사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지역방범대 대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송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면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과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실천한 활동이 있다.

영화관람이 그것이다. 지역의 문화해택이 전무한 실정에서 지난달 30일에 포천민아트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단체관람하는데 있어 기회부터 수송까지 담당했다는 이동면자율방범대.



박 홍 식 이동면자율방범대 대장

박 대장은 “너그러하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 선배의 끈끈한 정으로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주민들도 방범대의 활동에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혜매 기자 94spice@hanmail.net

## 포천署, 혁신 지향을 위한 직장훈련 실시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지난 5일 경찰서 강당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등 전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지향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에 앞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갖고 공사현장 자체 절도범 검거 등 중요범죄를 검거한 영북지구대 주범열 순경 등 3명과 외근성적 우수자인 소흘지구대 이승재 순경 등 2명에 대해 각각 경찰서장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이어 김영배 서장의 주재로 전직원에 대한 혁신 강의에서 김 서장은 훈시를 통해 직원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신을 갖고 일할 것 술선수범하는 혁신 경찰관의 자세를 갖추는 것 자신 주위의 동료 및 민원인에 대한 배려는 마음을 가질 것 마지막으로 자기관리에 힘써 줄 것 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찰창설 60년에 걸맞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찰관의 자세를 당부했다. 지혜매 기자 94spice@hanmail.net

**Dong Sung Uni-Tech.Co.**

# 최첨단 시스템으로 모든 제품에 완벽을 추구하는 동·성·유·니·테·크

차별화된 제품생산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며 미래를 열어갑니다




### <생산품목>

- ◆접착테이프
- ◆수입마스킹
- ◆순간접착제
- ◆스프레이,라카
- ◆우레탄 폼
- ◆양면 테이프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8 / 전 화 : (031) 532-8004 / 팩 스 : 031-532-5792 / 대 표 장 재 수